



간추린 청렴 소식

[1] 대검, '2020년 부패방지교육 실적' 권익위 제출

대검찰청 검찰부는 '부패방지 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2020년 한 해 동안 각 청에서 실시한 '부패방지교육 실적'을 국민권익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 신규자, 승진자에 대한 대면교육은 필수라는점! 기억해주세요~

[2] 영덕지청, '신규 및 전입직원 청렴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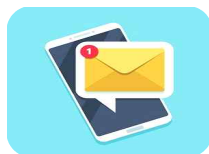


영덕지청(지청장 백승주)에서는 '21. 2. 22. 신규 및 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렴교육과 더불어 공직자로서의 생활자세 등의 당부말씀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3] 광주지검, '청렴문자' 발송

광주지검(검사장 여환섭)에서는 '21. 2. 1. 전 직원에게 '청렴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일 것이다.
하지만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은 더욱 멋진 일이다.
- 프랭클린 루즈벨트 -

[4] 춘천지검, '청렴퀴즈' 실시



춘천지검(검사장 김지용)에서는 '21. 2. 17. 검사장이 직접 출제한 문제로 전직원 '청렴퀴즈' 를 실시하였습니다.

퀴즈 정답자 중 3명을 선정하여 격려하였습니다♪



알아두세요

2020년도 하반기 자체 청렴도 결과

대검찰청 검찰부에서는 전국 59개 지검, 지청을 대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자체청렴도' 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등급에 따라 발표하였습니다.

그룹	대상	우수 청
1그룹	7개 지검	서울남부지검
2그룹	5개 지검	서울동부지검
3그룹	6개 지검	제주지검
4그룹	10개 차치지청	부산동부지청
5그룹	15개 부치지청	김천지청
6그룹	16개 단독지청	공주지청

국민이 믿고 함께하는 청렴한 검찰이 되기 위해 2021년에도 청렴 실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의 유형을 알고 있나요?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 위반 등과 이러한 행위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참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부패행위에는 '별일 아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인정보 무단조취, 승진후보자 명부 허위작성,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초과수당 부당수령, 공용물건 사적사용 등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공직자이기에 행동하기 전 부패유형에 해당하는 일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포함) 및 행동강령 위반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통보되며, 특히 비위면직자는 취업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렴 상식이 쑥쑥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조선 말기 순조 때 활동한 문신(文臣) 홍기섭은 나이 27세 때 과거에 급제한 후 고위 관직을 두루 거쳤으며 그 집안 또한 큰 권세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의 유명한 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홍기섭 공(公)이 젊었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다. 하루는 어린 종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돈 일곱냥을 바치며 말했다.



“이 돈이 솥 안에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쌀 몇 가마나 땀나무 몇 바리를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늘이 내려 주신 겁니다.” 공도 놀라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돈인가?” 하면서 대문 앞에 ‘돈 잃은 사람은 찾아 가시오.’ 라고 써서 붙이고 주인을 기다렸다.

얼마 후에 유씨라는 사람이 찾아와 “남의 집 솥 안에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참으로 하늘이 내려 주신 것 같은데, 왜 그것을 갖지 않으십니까?”

공이 말했다. “내 것이 아는데 어떻게 갖겠습니까?”

이에 유씨가 끌어 엮드리며 말했다. “기실은 소인이 솥을 훔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의 집안 살림살이가 너무도 없고 마음이 안 되어 솥 안에 돈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저는 공의 청렴하심에 감동하여 제 양심도 움직입니다.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돈은 받아두십시오.”

그러자 공이 돈을 되돌려 주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착한 사람이 된 건 기뻐할 일이지만 이 돈은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라며 끝끝내 사양했다.

공은 나중에 대성하여 판서가 되었고 그의 아들 재룡도 현종의 장인이 되었다. 유씨도 신임을 얻었고 그 집안도 크게 번창했다.

**벼슬살이 할 때는 공평함만한 것이 없고,
재물을 대할 때는 청렴함만한 것이 없다.**

- 충자(忠子)

홍기섭과 도둑 유씨가 개인은 물론이고 그 집안까지 세상에 이름을 높이 알릴 수 있었던 까닭은 모두 '청렴함' 때문이었습니다.

나부터 청렴을 실천하여 주변의 신뢰를 얻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청렴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1909년 중국 뤼순감옥에 수감 중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라는 유묵을 남긴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

*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라

- ① 윤봉길 ② 안중근 ③ 이봉창

※ 힌트 : Monthly청렴 2021년 2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 2021. 3. 19.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지난 2월 정답은 ① **세한도** 입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



추첨
당첨

안수훈(총주), 정강유(광주), 윤보미(수원고검), 석효진(대검), 김은주(남부), 이명희(홍성), 최운택(법무부), 송가희(진주), 박지은(안산), 최재환(외부)



민원인의 목소리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기다리는 이유도 모른 채 할일 없이 너무 오래 기다려서 불만이었습니다.

민원으로 어딘가를 방문하여 마냥 두리번거리며 기다리고 있는 나를 상상해 보면, 담당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검찰청이란 곳이 무섭고 가기 힘든 곳인데 입구에서부터 너무 친절하셨고 담당직원분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함께 간 일행이 검찰청이 이렇게 친절하단 곳인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친절하였습니다.

마산지청 열람등사(확정등) 담당자의 친절함에 감동을 받은 민원인의 의견이었습니다. ㄹ

